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맑고 아름다운  
2010. 2  
통권 202호  
사람들

# 입춘 삼재기도 봉행 및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입춘은 24절기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로 법왕사에서는 입춘을 맞이하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어 한해의 모든 액난을 소멸하고 가내 평안을 기원하고자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를 봉행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금년 한 해 모든 액난을 소멸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며 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입 재: 2월 4일 목요일 (음 12. 21) 오전 10시
- 회 향: 2월 28일 일요일 (음 1. 15) 저녁 6시
- 삼재명: 원숭이띠, 쥐띠, 용띠
- 준비물: 쌀3도3홉  
런닝1장(입던옷 깨끗이 세탁해 올 것)  
백원짜리 동전 나이 수만큼
- 동참금: 2만원

※ 접수시 신비의 다라니 부적을 나누어 드립니다.

## 경인년 연등공양 (법당1년등) 접수

경인년 한해를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혀 줄  
연등 공양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온 세상을 정화시키고 온갖  
복덕과 성불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연등공양으로 경인년 한해를 밝고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 가족등: 10만원 ◎ 영가등: 5만원 ◎ 사업등: 100만원

※사업등에는 사업체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http://www.bubwangsa.or.kr)

2010. 2  
통권 202호



## Contents

###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 18 사찰순례

달마산 미황사

### 22 재미있는 불교설화

호로병의 신비

### 26 알아봅시다

나한 - 인간적 체취를 간직한 신인동체

### 30 그곳에 가고싶다

미리 알고 떠나는 겨울축제

### 34 생활속의 기도법

영가 천도 기도법 1

### 38 마음이 머무는 곳

세계속의 문화유산 동/의/보/감

### 42 신간서적

부처님의 생애  
한국의 대종사들

### 44 웰빙푸드

버섯전골  
단호박 깻잎 튀김

### 46 만화 불교이야기

두 스승, 원효와 의상 3

### 50 지상갤러리

말린 꽃으로 포푸리 만들기

### 52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오분향례(五分香禮)란

### 54 마음의 여유

잘 되었다 - 석여공

### 56 법왕사 소식

### 58 법왕사 게시판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02호 불기 2554(2010)년 2월 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영일, 모도, 정명, 권기철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정미림 기획·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 “효자도 불효자도 부모가 만든다.”

옛날 어느 고을에 소문난 효자와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먼저 효자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하루 중 일 효자를 따라다녀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자 효자는 군불을 지펴 방을 뜨끈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모를 냉골에서 주무시게 놔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효자는 군불을 다 땀 뒤 부모님의 침구(寢具)를 잘 깔아서 방 기운과 이불 속을 따뜻

하게 하였습니다. 보통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칩니다. 그런데 효자는 그것도 부족하여 부모님이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 되면 옷을 벗고 미리 이불 속에 들어가 자기의 체온으로 침구를 따스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효자 아들 덕분에 부모님은 잠자리에 들 때부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금세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효자의 부모는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우리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다.”며 칭찬하느라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효자에 대한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이 효자를 우러러 봅니다. 그 마을에 효자 스타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불효자는 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효자보다 더

# Whether He Is a Filial Son or Not Is up to His Parents.

Long, long ago, there lived a well-known filial son and an unfilial son in a country. First, let's look at the daily life of the filial son. In fact, there is nothing particular about the filial son even if you follow him all day long. His life was quite ordinary. But when the sun set, the filial son heated the floor of his parents' room by burning firewood in the fuel hole. It was not particular, either. As you know, all the other people didn't let their parents sleep in a cold room. After burning firewood, the filial son made bedclothes for his parents to sleep in a warm air of the room. These are the things that can be expected from ordinary people, too. But the filial son was not content with this. When the time came for his parents to go to sleep, he bothered to lie under the coverlet of his parents in order to warm the inside with the temperature of his naked body. Thanks to the filial son's such careful concern, his parents could sleep well under the warm coverlet as soon as they went to bed. The next day, whenever they met the village people, the filial son's parents were very loud in their son's praises, saying "Our son's filial piety is beyond description." These remarks spread quickly from mouth to mouth until all the country people came to respect the filial son. A star, as it were, a filial son came into being in the village.

On the other hand, An unfilial son living in the same village always had the feeling of unfairness. He was, in fact, more sincere than the filial son. He was so diligent by working from the very early morning that he could accumulate quite a lot of fortune. In spite of his hard work and efforts to support his parents on his own, he was always labelled "an unfilial son." He secretly became jealous of the people's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도 많이 불려놓았습니다. 그렇듯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부모님 봉양을 잘 하기 위해 애쓰는데도 ‘불효자’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가 효자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효자는 늘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효자네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저 친구와 똑같이 하면 나도 곧 효자라는 소문이 나겠지.’

숨을 죽이고 하루 종일 효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효자의 행동을 살핀 불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자 되기 정말 쉽네. 별것 아니군.’

다음 날 해질 무렵, 불효자는 효자처럼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서 방을 따끈하게 하였습니다. 미리 아랫목에 부모님의 침구를 깔아놓고 밤이 이슬하기를 기다렸지요. 부모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 오자, 불효자는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신의 체온으로 이불 안에 온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자기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면서 작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놈이 버릇없이, 애비의 이불에서 잠을 자다니 천하에 불효막심한 놈.”

다음 날, 아버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만나는 사람마다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아들을 불효자라고 몰아세운 것은 물론이지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불효자를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불효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도 있고 불효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효자, 불효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praises that his friend was a filial son. At last he felt the surge of resentment. For he always had to live under the blame that he was an unfilial son.

One day, he sneaked into the filial son's house stealthily. He thought, "How can I win the praise of 'the filial son'? If I do the same as my friend, I will have a good reputation that I am a filial son." After he followed him all day long watching the filial son's actions with breathless attention, the unfilial son smiled complacently, saying "It's really easy to be a filial son. There's nothing particular."

At dusk the next day, the unfilial son heated his parents' room by burning firewood in the fuel hole just as the filial son did. He waited for the sleeping time to come after he made bedclothes for his parents on the floor near the fireplace. As the time neared, he took off his clothes and warmed his parents' coverlet with his body's temperature. At the moment, his father came into the room to sleep. To his surprise, however, he found that his son was lying under his coverlet! What an unfilial thing it is! He had a fit of anger, and scolded and beat his son wildly with a stick. He yelled, "How ill-mannered you are! How can you sleep under your father's coverlet? What an unfilial son you are!"

On the next day, his father didn't calm his anger and vented his resentment on every people he met by speaking ill of his son's bad conduct. Of course, he blamed his son by calling him an unfilial son. The rumor spread quickly from mouth to mouth. So all the village people avoided the unfilial son.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Are you a filial son, or an unfilial son? Are you making your children filial ones, or unfilial ones? In the same situation, you can also make your children filial ones or unfilial ones.

Not only in the case of a filial son or an unfilial son, but in the case of life itself, the same is true. The world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your world view. According to whether you have a positive view or a negative view, life becomes different as greatly as the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Are you going to change all your relations positively into desirable ones? Or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살면서 슬픔에 차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주에는 위대한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간파하시고 범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은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의 자취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밝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밝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만일 여태까지 어둡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일부러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성격도 연습하면 고쳐집니다. 지금의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미리 찬탄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are you going to wallow in grief by looking on things negatively from a biased viewpoint? If you should change your children at all, don't you want to change your children into filial ones? There is a great law of mind in the universe. Earlier the Buddha realized this and said in the Dhammapada as follows:

Mind is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If one thinks about good things in his mind,

His speech and action will also be good.

And happiness follows him just as

the wheel follows the foot of the carriage.

Mind is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If one thinks about evil things in his mind,

His speech and action will also be evil.

And suffering follows him just as

a shadow follows an object.

Isn't there a saying that when you smile there happen things pleasant to smile? If you think and act brightly, bright energy is formed around you. Even if you have thought and acted dimly and negatively so far, please take the trouble to think and act brightly and positively. Character can be changed if you try. Since the present 'I' is not something permanent and constant, you can upgrade your life by adopting a new kind of thought and action. Now I give applause of admiration to those who changed their lives brightly and positively in order to enjoy a happy life.

##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 것을...”

며칠 전 언론에 단돈 만원 때문에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접했다. 아무리 요즘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심마저 각박해져가는 현대이지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자식간의 관계인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린 현실이 너무 참담하기만 하다.

사람 인(人)자의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을 시작할 때 사람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작대기 두 개가 서로를 받쳐주

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이란 것은 바로 너와 나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인연이다. 옛사람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반면, 유행가 가사의 '내 인생은 나의것'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가족간의 인연마저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인연이란 것은 끊겠다고 해서 끊기고, 잇겠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어리석음이자 무지인 것이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서 구슬처럼 꿰이고 엮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인연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옷 깃 한번 스쳐도 오백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한다. 우리가 단 한 번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고 옷 한번 스치고 지나간다고 해도 전생에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인연을 지어왔기 때문에 금생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은 얼마나 많은 전생의 인연이었겠는가 말이다.

우리 불교에서 인연이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 생길 때 아주 강한 힘과 영향을 주는 것은 인(因)이라 하고, 작고 약한 힘을 주는 것을 연(緣)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쌀을 수확하기 위해 벼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은 인이 되는 것이고, 벼가 잘 자라기 위한 적당한 햇빛



과 물과 기름과 김매기 하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은 전부 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씨앗과 주위의 여러 환경이 결합해서 싹을 만들어 낼 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인이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연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을 설명할 때는 항상 12연기(緣起)에 근거를 하는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12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그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그것이 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이, 공간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현재에 드러난 것은 과거에 그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이며,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서로의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음(無明)으로 인해 행(行)이 있다. 행으로 인해 식(識)이 있으며, 식으로 인해 심적·육체적 유기체(名色)가 있다. 또한 심적·육체적 유기체로 인해 여섯 감각기관(六入)이 있고, 여섯 감각기관으로 인해 대상과의 접촉(觸)이 있으며, 대상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각의 받아들임(受)이 있다. 감각의 받아들임으로 인해 감각대상에 대한 욕망(愛)이 있고, 감각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집착(取)이 생기는 것이다. 집착으로 인해 태어나고 자 하는 의지(有)가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 태어남(生)이 있으며, 태어남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老死)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 만물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중생들의 삶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인연과 악연이라 불리는 나쁜 인연이 있을 것이다.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 하건만 꼭 그럴 수만 없는 것이 인연인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백안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눈을 흘기면 눈동자의 흰 자위가 드러난다 하여 그걸 ‘백안시한다’ 하는 것이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하여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생과 내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가 나쁜 인연으로 맺어온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인연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12연기를 이해한다면 관계 속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을 지닌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증오, 주고받는 것을 모든 인연으로 인식하고 노력과 강한 의지, 기도 등을 통해 나쁜 인연의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어려워도 그 순간을 인내할 수 있다면, 서두에 언급한 단 돈 만원 때문에 딸을 살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스쳐가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니 나의 삶에 큰 이로움을 주는 인연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기에 네가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있었기에 삶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삶이 있기에 나눔의 여유가 생기고, 나눔의 여유가 있기에 사회가 밝아지고, 밝은 사회가 있기에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 그림자 형상을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쫓듯이

업(業, Karma)은 불연속적 흐름인 다발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3개국을 두고 과거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등 고대사를 들춰보면 ‘관구조론’의 형성 때문인지 임난(1592년) 이전에도 지진은 있었지만, 미미한 정도였고, 재앙격인 대지진은 조선침략을 하고서부터 일어났음을 상기해 볼 일이다.

당시 왜(倭)로선 최초의 외국 정벌이었던 조선침략 7년에 걸쳐, 3백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우리 백성을 죽였으며(선조 무렵, 인구 이천만 명)도공을 비롯한 기술인력을 닥치는 대로 잡아갔고 수십만 명의 귀를 전리품으로 베어가는 등 한반

도를 생지옥으로 만드는 만행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그 후 다시 36년 동안 강점 통치하며 강도 같은 수탈과 착취를 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혔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동남아 국가들에게 말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기면서, 대략 이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인명을 살상시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관동대지진 당시, 민심의 동요를 막고자 ‘지진은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들이 유언비어를 악성 퍼뜨린다’며 날조, 선동에



격분한 일인들이 닥치는 대로 우리 교포 들을 잡아다가 총알도 아깝다며 죽창으로 찢러 무수한 죽임을 당하는 잔혹한 참변을 당했음은 우리가 익히 듣고 배워야 하는 바이다.

그리고 근세 중국은 또 어떠했는가?

1950년 티벳침공 시, 당시 티벳 전체 인구의 1/10이나 되는 백만명을 학살·처형했는가 하면 그후 중국정부는 무쇠술과 농기구까지 강제로 거둬들이면서까지 철강대국의 헛된 꿈을 쫓아 모택동의 정책실패로 1959~61년 사이, 농촌인구 4천만명이 아사(餓死)하는 가운데 가족의 인육까지 먹어대는 전대미문의 아귀 세계를 연출했었고, 작금의 천안문사태 때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무차별 죽임으로써 체제유지에 성공한 이후, 이른바 중국식 사회·자본주의를 절충한 방식으로 이념·체제가 계승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도 사천성에서 대재앙이 발생했다. 그것도 중국이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가운데, 야심찬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으려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불과 3개월 여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2008

년 8월 8일 8시에 맞춰 올림픽 개막식을 준비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진 발생일이었던 5월 12일에서 8월 8일까지는 쌍으로 겹친 수가 되는 꼭 88일을 남겨놓고서다. <8>의 숫자가 의미함은 중국이 사랑하는 고전 역학(易學)을 태동시키며, 철학의 효시인 주나라 문왕(文王)의 낙서(洛書) 팔괘도(八卦圖)에서 중국 대륙이 위치한 지정학적 진괘(震卦, )의 오행 수에 해당하는 선천생수(先天生數)가 <3>, 후천성수(後天成數)는 <8>이 되는 까닭에 선호하는 수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지식·학문을 매개로한 과학이 규명할 수 있는 영역만큼이나 접근할 수도 없는 영역 부분이 있듯이, 직관(直觀)의 지혜·통찰로서 밀도있고 심도있게 다루는 불법의 수승함과 과학은 그 차원에서부터 다르다.

타인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피눈물을 뿌리게 하며 원한을 사는 살상행위는 어느 시기, 어떤 형태로든 인과 연이 화합할 때, 다시 그와 같은 앙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생활의 규법·질서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일반적 법률 내지는 윤리·도덕 개념 그 이상의 법으로써 준엄하게 적용되는 인과

울이랄 수 있는 비 인격법칙이다.

따라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재해(災害) 및 재앙(災殃)을 두고 우연에 의한 천재 지변이라 보는 건 과학이지만 폭넓은 인과적 시각에서 보면 결코 인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티벳 고원지대의 단층이 중국 사천성 분지를 밀어붙이면서 충동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해석은 과학의 설명이고 그러기까지 드리워진 배경의 인과론적 관계는 과학으로서도 알 수 없는 베일에 싸인 미지의 영역이다.

표피 사이의 육안일 뿐인 인간의 눈과 허약한 지식·관념으로 법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 눈에 해와 달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해와 달이 없는 것이고 백내장 걸린 사람의 눈에 ‘헛것’이 보인다고 해서 ‘헛것’이 실재라고 단정 짓는 것과도 다름없는 무지한 소견이다.

1950년 중국이 티벳을 침략, 만행을 저지른 일과, 그후 26년 뒤인 76년 26만 명이 사망·매몰 됐다는 탕산 대지진과 한반도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3만 5천 평방Km가 갈라지고 뒤집어진 사천성 지진과의 양자간에 드리워진 인과적 실

체의 진실은 과학이나 지질학이 연구하고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려니와, 인지해 알 수 있는 영역 또한 아니다.

되풀이 하지만, 왜냐하면, 이는 부단한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지혜에 눈 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 가지는 실상을 투명한 눈으로 관조(觀照)하는 혜안(慧眼)의 소유자가 아닌한, 단순히 연구·분석 규명하는 과학지식·정보로는 표면에 일어난 현상 뒤에 드리워진 4차원적 현묘(玄妙)한 이법(理法)은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티벳의 수도 라사를 점령하자, 달라이라마는 북인도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유혈투쟁보다는 비폭력과 대화로서 티벳 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그는 중국의 침략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탐욕스런 중국이 티벳에 매장된 자원을 노리고 강제 합병한 것은 이제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믿는 법(인과)의 불교사는 천오백년이다... 장차 이일로 중국은 차지한 만큼 잃게 될 것이고, 티벳은 잃은 만큼 오지에 은둔해 있던 티벳 불교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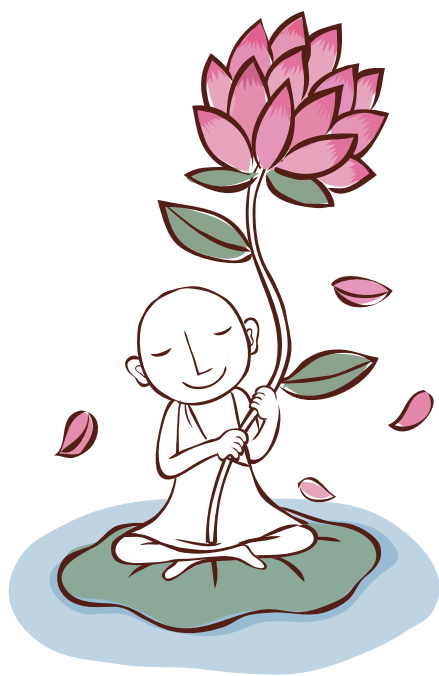


되었으니... 무릇 힘을 앞세운 국가의 무력 침탈·강점은 필경 자기나라 해침이 되고 만다.”고 했음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상관적 개연성을 내비친 것으로, 총칼의 힘 앞에 당장은 짓밟힌 티베트보다도 되레 우려 되는 쪽은 피로서 억지로 빼앗아 차지한 중국 쪽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우회적으로 비친 달라이라마의 말대로, 이번 일로 중국은 뜻밖의 악재로 곤혹스러워 하는 가운데, 도리어 구호성금을 걷어 중국 이재민을 돕는 티베트 승려들의 모습을 볼 때, 개인이건 국가이건 남 해침이 나 해침이 되고, 남 잘 되게 함이 곧 나 잘 되게 하는 지름길임은 조금도 역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는 때문에 지구표면에 위치한 일본·중국과는 달리 지진강도가 낮은 관례로 다행히 이제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판구조론’ 형성을 떠나, 자연재앙과 관련하여 저들이 이웃인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중국처럼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괴롭힌 적이라곤 없을뿐더러, 고래로 타민족의 증오나 원한을 산 일이

없다. 힘이 없어서이건, 그리고 싶지 않아서이건 도균이 정한 산악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산성을 쌓아 외세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도 벽찬 지경에, 정벌의 이름으로 미화하며 남의 나라 주권이 나 빼앗고 짓밟으며 괴롭히지 않았음은, 전율할 죄 값음인 인과의 법칙을 생각할 때, 차라리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 달마산 미황사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절, 달마산 미황사.

미황사는 1692년(숙종 18)에 건립된 <미황사사적비(美黃寺事迹碑)>에 기록된 창건 연기 설화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사찰이 창건되었다고 하니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한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수려한 달마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사찰이 미황사이다.



미황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동국여지승람」권35 영암군 산천조(靈巖郡 山川條)를 보면 미황사의 창건주와 창건 시기, 그리고 고려후기 미황사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92년(숙종18)에 민암(閔暗, 1634-1692)이 지은 「미황사 사적비」(美黃寺 事迹碑)에는 미황사의 창건 연기설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창건설화에 의하면 돌로 된 배가 사자(獅子) 포구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물러나면 가까이 다가오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의조가 제자들과 함께 목욕 재계하고 맞이하니 비로소 배가 포구에 도착했다. 배에 올라보니 금의인(金衣人)이 노를 잡고 있고 큰 상자 안에 경전·비로자나불상·문수보살상·보현보살상·40성중·53선지식(五十三善知識)·16나한·불화(佛畵) 등이 꽂 차 있고, 배 안에 있던 바위를 깨니 검은 황소 1마리가 나왔다. 그날 밤 의조의 꿈에 금의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인도 국왕으로 금강산에 봉안하고자 경전과 불상을 싣고 왔으나 금강산에 절이 가득해 새 절터가 없어 돌아가던 중인데 이곳의 지형이 금강산과 비슷하므로 소 등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가다가 소가 머무는 곳에 절을 지으라”고 했다. 이에 다음날 소 등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길을 떠났는데 한 곳에 이르러 소가 한 번 크게 울고 드러눕자 그곳에 통교사(通敎寺)라는 절을 짓고, 소가 다시 일어나 가다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에 지은 절이 바로 이 절인데 미황사의 ‘미’는 소의 울음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따온 것이고, ‘황’은 금인의 황홀한 색에서 따와 붙인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동국여지승람』과 『미황사사적기』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미황사는 경덕왕 8년(749)에 의조화상이 창건하여 화엄경, 법화경을 중시하며 여러 불상을 모신 사찰로 해야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창건 설화는 곧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고려시대의 미황사는 중국에 까지 유명한 절이었다고 하는데, 『동국여지승람』영암군(靈巖郡) 산천조(山川條) 달마산(達摩山)에 보면 「고려 때 승려 무외(無畏)의記에 …(전략)… 그 암자(도솔암) 북쪽에는 서굴(西窟)이 있는데, 신라 때 의조화상이 비로소 붙어 살면서 낙일관(落日觀)을 수리하던 곳이요, 서쪽 골자기에는 미황사(美黃寺)·통교사(通敎寺)가 있다. 지원 신사년 겨울에 남송의 큰 배가 표류해 와, 이 산 동쪽에 정박했을 때 한 고관이 산을 가리키면서 주민에게 묻기를, “내가 듣기에 이 나라에 달마산이 있다 하는데 이 산이 그 산 아닌가.”하므로 주민들이 “그렇다” 하였다. 그 고관은 그 산을 향하여 예를 향하고, “우리나라는 다만 이름만 듣고 멀리 공경할 뿐인데, 그대들은 이곳에 생장했으니 부럽고 부럽도다. 이 산은 참으로 달마대사가 상주할







후불탱화

땅이다.”하고 그림으로 그려갔으니 위대하다. 이 산이여, 어찌 매우 높고 빼어난 모양이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다 했을 뿐이라. 그 성적과 영험한 자취도 많도다. 또 외국인들까지도 우러르고 공경함이 저와 같다.”고 되어 있으니, 미황사가 있는 달마산은 중국인들에게도 영험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유재란 때(1597) 전남의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미황사도 건물이 불타버리고 기록마저 없어져 버렸다. 그 뒤의 사적은 알 수 없었으나 1982년 대웅전 복원 공사 때 1754년(영조 30)에 기록된 <미황사법당중수상량문>을 발견함으로써 건물 중수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미황사는 1601년(선조 34)에 중창하고, 1660년에 3창했다. 1752년 금고(金鼓)를 만들고, 1754년 대웅전과 나한전을 증건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동안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버려진 절이었던 미황사. 1980년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오늘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현존 당우로는 대웅전(보물 제947호)·응진전(보물 제1183호)·오백나한전·명부전·요사채 등이 있다. 또한 미황사에는 영조3년에 조성된 괘불이 있는데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과 조선 불화의 단순미를 고루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도밭이 아름다운 미황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갖가지 문양을 가진 부도들이 예로부터 큰스님들이 수행하던 이름난 수행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고기, 게, 자라, 오리 거기에도 도깨비 얼굴, 용머리, 불로초까지 불교와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양까지 다양한 문양들이 모여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해남의 최남단 사찰 미황사.

미황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각인 응진전에서 보는 서해일몰은 일품이라고 하니 달마대사가 있는 달마산으로 떠나보자.



부도전



대웅전

## 부산시 동래·원효대 호로병의 신비

『대선아.』

『네, 스님.』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다섯 개만 구해 오너라.』

『갑자기 호로병은 뭐 하실려구요?』

『쓸 데가 있느니라. 어서 사시마지 올리기 전에 다녀오너라.』

대선 사미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큰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들었다.

『어떻게 할까?』

지그시 눈을 내려감은 원효 스님은 수차의 자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쪽을 택했다. 스님은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5만 왜구를 살생죄로 각오했다. 그것은 무고히 짓밟힐 신라 백성을 구하면서 적군 마저도 살생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보살심이었다.

5만명 살생이란 큰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는 결심이 서자 원효 스님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후련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때 저 멀리 수평선에 하나 둘 까만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배들이 동해를 까맣게 덮었다. 왜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 지금으로부터 약 1천 3백년 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일본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함대와 동해안 지방을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그럴 때마다 태평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배를 만들고 군사를 길렀다. 그러자 왜구는 몇 년 간 뜸했다.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졌다. 이 틈을 노려 왜구의 대병 선단이 물밀듯 밀어닥친 것이었다.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왜구는 일로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채비를 차렸다. 이들은 동래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 놓았다. 원효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계략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미 그의 나이 60여세. 이제 자신의 생애에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파란 많은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20세 젊은 나이에 구도의 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홀연 자성을 깨달은 지 어언 40여 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떼와의 생활 등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계는 일찍이 없었다.

『5만의 목숨을 살릴 길은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 놓고 암자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테니 가보아라.』

『가서 어떻게 할까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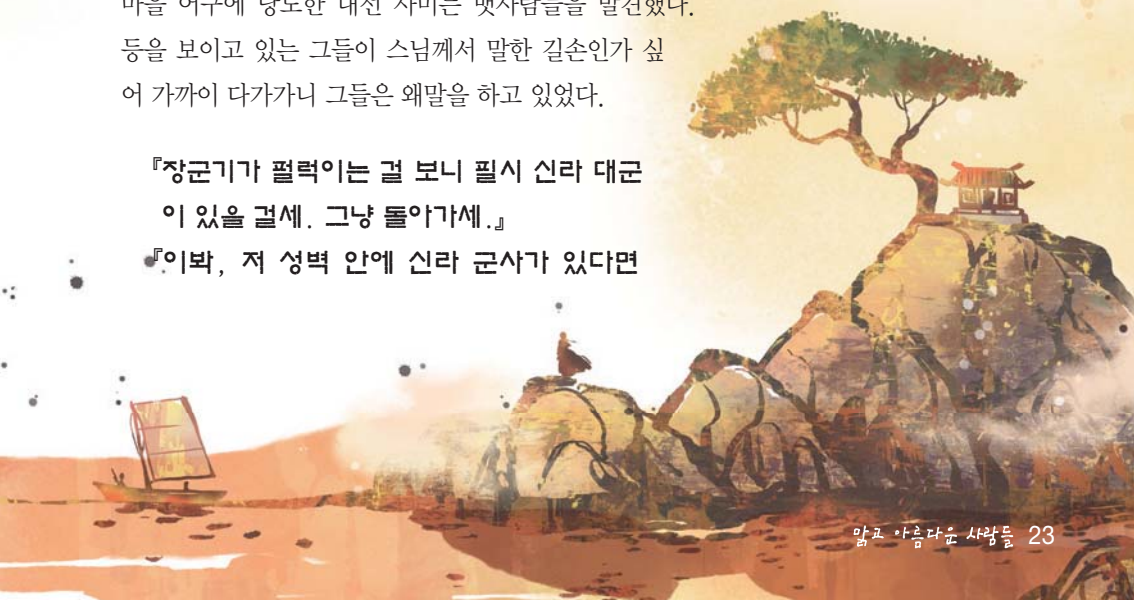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니라.』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 사미는 뱃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왜말을 하고 있었다.

『장군기가 펼쳐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 대군이 있을 걸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성벽 안에 신라 군사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하니 성벽 안에 군사는 있을 리 없네. 저 장군기는 무슨 곡절이 있을테니 올라가 알아보세..』

둘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미승은 뒤를 따랐다. 산 중턱쯤 오르자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 서 있는 사미승을 보고 손짓해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을 가려는데 안내 좀 해주겠느냐?』

『그러구 말구요. 저 절은 제가 사는 미륵암이에요. 함께 가시죠..』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니?』

『아뇨..』

이들이 왜국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두 녀석이 막 길을 내려가는데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손은 잠깐 들렀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냥 돌아가렵니다. 다음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뇨.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아,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냐, 달아나면 익심을 살 테니 구경이나 해보자..』

어쩔 수 없이 암자에 들어선 두 녀석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이런 그들을 훑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왜군을 만났겠군..』



『왜군이라뇨? 못 봤는데요..』

『못 봤다구? 네가 네 자신을 못 봤다고 하다니, 너희가 왜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에서 비수를 꺼내 스님을 향해 찔렀다. 순간,

『네 이놈!』

대갈일성과 함께 선사의 주장자가 허공을 쳤다. 칼을 빼든 왜군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를 본 한 녀석은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다른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다섯 개를 나란히 놓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어기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대군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선사는 붓을 들어 호로병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다. 그러자 두 녀석의 목이 아프면서 조여들었다. 그리고 목에는 호로병과 같은 핏명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두 녀석은 공포에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빌었다. 스님은 다섯 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갖고 너희 대장에게 가서 일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 녀석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보고했다.

『뭣이? 이 따위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거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칼을 들어 호로병을 쳤다. 병이 깨지는 순간 대장의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졌다. 놀란 왜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지금도 동래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에 가면 원효대 바위가 있고 바위에는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가 움푹 파인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5리쯤 올라가면 미륵암이 있고 그 뒤로 성벽이 있어 원효 스님의 자재했던 신통력을 재음미케 한다.

## 나 한 인간적 체취를 간직한 신인동체

나한(羅漢)이란 산스크리트어 Arhat[Arhan]의 한자음역인 아라한(阿羅漢)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응공(應供), 무학(無學), 이악(離惡), 살적(殺敵), 불생(不生)이라고도 번역한다.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이며, 무학은 더 배울 것이 없다 해서, 이악은 악을 멀리 떠났다는 의미로, 살적은 번뇌라는 적을 죽였으므로, 불생은 다시는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즉 나한이란 초기 불교의 최고의 성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번뇌를 완전히 끊어 더 닦을 것



이 없으므로 마땅히 공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성자라는 뜻이다. 이 경지를 아라한과(阿羅漢果),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단계를 아라한향(阿羅漢向)이라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붓다를 아르하트(arhat: arhan의 주격)라고도 하였고, 고대 인도의 여러 학파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를 아르하트라고 하였다. 자이나교에서는 지금도 성자를 아르하트라고 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부처와 아라한을 구별하여, 아라한은 부처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소승의 성자라고 격하시켰다. 아라한의 유래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녹야원에서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다섯 수행자에게 가장 먼저 설법을 했다는 초전법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다섯 사람이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고 원시적인 교단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차례대로 모두가 정각을 얻게 됨으로써 부처님을 포함해 여섯 사람의 아라한이 생겼다고 한다.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별칭인 ‘응공’이라고도 함께 불렸던 것이다. 그러나 부파불교에 이르러서는 아라한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지 않고 불제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계위가 되었다.

그러다가 아라한의 위치는 대승불교가 흥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승불교는 보살사







상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였다. 즉 부파불교에서의 아라한을 두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추구하여 수행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다. 결국 당시의 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변모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된 것을 두고 비난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도 아라한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대승경전의 성립과 사상의 형성을 통해서 나한은 대

승적 위치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타인을 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남기를 다짐한 보살과는 달리 그들만의 임무를 갖게 되는데, 미륵부처님이 오기 전까지 정법(正法)을 수호하고 다른 이의 복전(福田)이 되어 용화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한은 그 수가 16, 500, 1200 등 다양하지만 보통 16나한과 500나한을 말한다.

16나한 신앙은 당나라 현장스님이 서기 645년에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에 기초한다. <법주기>는 부처님 열반후 800년 경에 난제밀다라(難提蜜多羅) 아라한이 쓴 것이라고 한다. <법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16인의 나한에게 불멸(佛滅) 이후에도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며 각지에서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촉을 내린다. 이들은 모두 삼명(三明), 육통(六通), 팔해탈(八解脫)의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삼계의 오락에 물들지 않는다. 학문은 경울론 삼장은 물론 외도의 경전에도 능통했다.神通력도 지니고 있다. 중생들을 위해서는 참된 복전이 되었다.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일으켜 스님들을 위하여 큰 법회나 5년마다 무차대회를 열거나, 스님들을 초대하여 법회를 열면 십육나한과 권속들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공양을 받으며 시주자에게 커다란 과보를 얻도록 하였다. 대승의 보살이 하는 역할과 똑같다. 보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16명은 집단적으로 숭배 받는다는 것이다. 16나한은 4명의 나한이 확대된 것이다. <미륵하생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대가섭, 군저발탄, 빈두루, 나운 4비구가 4명의 아라한이다. 부처님이 이 4명의 비구에게 정법을 부탁하여 열반에 들지말고 영구히 세상에 남아 정법을 수호하여 미륵보살님의 출현을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미륵하생경>이 서기3세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



아 대승불교가 융성하면서 4대 아라한에서 16아라한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소승불교에서 나오고 부파불교의 수행자가 된 나한은 이처럼 보살과 다른 없는 역할로 인해 중국 한국 일본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나한신앙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16나한과 더불어 나한신앙의 한축을 맡고 있는 500나한 역시 중국의 산물이다. 오백나한에 대하여는 여러 경전에 기록이 있는데 <증일아함경>이나 <십승률>(十誦律)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인도 코살라국의 사위성에서 500명의 나한들을 위하여 설법하였다고 한다. <흥기행경(興起行經)>에는 매월 15일 500나한을 위한 계(戒)를 설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에서는 부처님이 500명의 나한을 위하여 특별히 수기(授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온다.

<오분율>에는 부처님이 열반한 직후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의 칠엽굴에서 500명의 나한이 결집하여 불전을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제1결집을 오백결집이라 부른다. 부처님 열반 후 600년이 지난 뒤 열린 제4결집에 참가한 500명의 비구도 오백나한으로 받든다. 이외 중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500나한에 포함시킨다.

현장스님의 <대아라한난제밀다라설법주기>에 설명된 나한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나한은 본존을 중심으로 왼쪽에 1,3,5,7,9,11,13,15 존자가, 오른쪽에 2,4,6,8,10,12,14,16존자가 배치되어 있다. 각각 나한의 이름을 살펴보면, 왼쪽에 배치된 나한은 (1)빈도라발라타사(賓度羅跋黎墮) (3)가락가발리타사(迦諾迦跋釐墮) (5)낙거라(諾距羅) (7)가리가(迦理迦) (9)수박가(戌博迦) (11)나호라(羅怙羅) (13)인게타(因揭陀) (15)아시다(阿氏多)이며, 오른쪽 배치된 나한은 (2)가락가벌차(迦諾迦伐蹉) (4)소빈타(蘇頻陀) (6)발타라(跋陀羅) (8)벌사라불다라(伐羅弗多羅) (10)반탁가(半託迦) (12)나가서나(那迦犀那) (14)벌나파사(伐那婆娑) (16)주다만탁가(注荼半託迦)이다.



## 미리 알고 떠나는 겨울 축제



통통하게 살 오른 최고의 대게를 만나다.  
**2010 국제울진대게축제!**

개최기간 : 2010년 2월 26일(금) ~ 2월 28일(일) 3일간

개막식 : 2010년 2월 27일(토) 18:00

개최장소 :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왕돌초광장) 일원

대게는 우리나라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울진에서 23km정도 떨어진 ‘왕돌초’에 서식하는 대게를 으뜸으로 친다.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길다하여 이름 붙여진 ‘대게’는 필수 아미노산과 핵산이 풍부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다.

봄은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 2010국제울진대게축제가 열리는 후포항으로 울진대게 마중을 가보자. 행사기간 중에는 울진대게 축제요리 경연, 대게잡이 및 선산일출 등의 체험행사와 요트 해상퍼레이드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대게의 유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45권 평해군편 및 울진현편의 기록에 의하면 “대게”를 자해(紫蟹)라 표기하고 있고, 옛날부터 주요한 특산물로 “대게”가 포함되어 있음

을 기록하고 있다. 대게의 중국명 또는 한자어는 죽해(竹蟹), 대해(大蟹), 발해(拔蟹) 등으로 불리는데, 대게란 이름은 몸체가 크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몸통에서 뺀어 나간 다리의 모양이 대나무처럼 곧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게는 보통 황금색, 은백색, 분홍색, 홍색 등 색깔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는데 진짜 대게는 황금색이 짙은 “참대게” 또는 “박달게”를 말하며, 다리가 여섯 마디라 해서 옛날에는 “육촌(六寸)”이라고도 하고, 대나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죽촌(竹寸)” 또는 “죽육촌(竹六寸)”이라고도 불려져 왔다.

대게의 암컷은 수컷보다 몸체가 훨씬 작아 찐빵만 하다 하여 “빵게”라고 부르기도 한다. 울진보다 영덕이 대게의 명산지로 알려진 것은 1930년대 교통수단이 원활 하지 못하던 당시 서울, 대구, 포항, 안동 등 대도시에서 해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영덕으로 중간 집하되어 반출하였음으로 집하지인 영덕의 지명을 사용, 영덕대게로 불려져 오고 있으며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울진지방이 예주(현 영해)에 속해 있던 까닭으로 울진 지역 인근을 통털어 예주(현 영해)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 명태와 함께하는 겨울바다 축제 2010 고성명태축제

행사명 : 제12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

시 기 : 2010년 2월 25일(목) ~ 2월 28일(일) 4일간

장 소 :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위판장 일대

겨울 해변을 거닐며 보는 바다는 무척 낭만적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 걷기는 그만하고 고깃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보자. 국내에서 최고의 명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고성의 명태축제에서는 마지막 겨울바다를 고깃배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

고성은 전국 명태 어획량중 62%를 고성군 각 항구에서 차지하여, 제1의 명태고장임을 과시하고 있다. 명태와 연관된 어민들의 삶과 항구도시의 짙은 향수가 배어나오는 거진항.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고성산 명태해장국이나 명태찜에 소주한잔으로 겨울날의 차가운 기운과 답답했던 가슴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로 떠나보자.

생선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명태이다. 명태는 조선시대 함경도 관찰사가 명천군에 초도순시를 했을때 반찬으로 내놓은 생선이 담백하고 맛이 좋아 이름을 물었더니 명천에 사는 태씨성의 어부가 처음으로 잡아온 고기라는 말을 듣고 명



천의 명자와 태씨 성을 따 명태(明太)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또한 이 생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고 하여 명태라는 설도 있다.

명태는 지방과 잡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다. 유자망으로 잡은 것은 그물태 또는 망태라고도 하고, 연승으로 잡은 것은 낚시태, 겨울에 나는 것은 동태, 3~4월 봄에 잡히는 것은 춘태, 산란을 한 명태가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한 것은 꺾태, 노가리는 앵치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명태새끼는 노가리, 냉동하지 않은 싱싱한 것은 생태, 꾸덕꾸덕하게 반쯤 말린 것은 코다리, 완전하게 얼린 것은 동태, 두 달 정도 바짝 말린 것은 북어, 작은 것은 진태, 흑태라 한다. 내장은 창란젓, 알은 명란젓을 담근다.

명태는 덕장에서 ‘사람 손이 수십 번 넘게 가야 황태’가 되며, 서너 달 동안 스무 번 이상 얼렸다 녹였다 해야 하는데, 적당하게 춥고 바람도 알맞게 불어 주어야 한다.

또한 명태는 그 개체수가 많고 출산율이 좋아 예로부터 ‘풍요를 의미’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아 “변치 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일타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 영가 천도 기도법 1

살아 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없었다. 태어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 들였다. 옷을 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겠다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마이가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 탄 현차를 버리고 새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죽음이요 환생(還生)으로 본 것이다.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은 ‘나 스스로 지은 바로 업’이 쥐고 있다. 살아생전 내가 지은 행위, 내가 추구한 바를 좇아 인연처(因緣處)를 구하는 것이다.

극악(極惡)의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한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천상(天上)의 세계로, 탐욕에 찌든 존재는 아귀(餓鬼)의 옷을, 뚜렷한 원력(願力)을 세운 사람은 그 원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기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그 모든 중생이 살아생전에 잘 살고 훌륭한 원을 세워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자신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한평생 업을 살펴볼 때 자유롭고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좋게 환생할 것 같지만 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은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중생의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천도법(薦度法)이다. 불보살의 크나큰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妙法)이 우리 불교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 영가의 천도

### (1)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

구체적인 영가천도 기도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영가에 대한 기본 상식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십 년 전 합천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원의 학승들이 가을 수확 철에 장경각 뒤쪽의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러 갔다. 그런데 잣나무가 워낙 높아 한 나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른 나무로 올라가려면 힘이 드니까, 몸이 재빠른 학인들은 가지를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냥 건너뛰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그렇게 잣을 따다가 한 학인이 자칫 실수하여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침 그 밑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

어 몸에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학인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순간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이 일어나자 그는 이미 속가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배가 많이 고프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길쌈을 하고 있는 누나의 등을 짚으며 밥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머니와 함께 길쌈을 하던 누나가 갑자기 펄펄 뛰며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었다. 누나가 아프다고 하자 면목이 없어진 그는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리밥과 쫄면물을 된장국에 풀어 바가지에 담아 와서는 시퍼런 칼을 들고 이리 저리 내두르며 벼락같이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네 이놈 객귀야, 어서 먹고 물러가라.”

그는 깜짝 놀라 뛰어나오며 투덜거렸다.

“에잇, 빌어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그래, 나도 참 별일이지. 중이 된 몸으로 집에는 무엇 하러 왔나? 더군다나 사람대접을 이렇게 하는 집에……. 가자. 나의 진짜 집 해인사로.”

그리고는 해인사를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데, 길 옆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낮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유혹하였다.

“스님, 우리랑 함께 놀다 가세요.”

“중이 어찌 이런 곳에서 놀 수 있겠소?”

“에잇, 그놈의 중! 간이 적어서 평생 중질밖에 못해 먹겠다.”

사냥을 하고 돌아서는 그를 보고 여인은 욕을 퍼부었다. 욕을 하든 말든 다시 해인사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 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다. 억지로 뿌리치고 걸음을 옮기는데, 이번에는 수건을 머리에 걸끈 동여맨 수십 명의 무인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을 것을 권하였다.

그들도 간신히 뿌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재(齋)가 있는지 염불소리가 들려 왔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소리가 이상하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들어보니,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푹푹푹 ‘은행나무 바리떼’ 푹푹푹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제경행상’ 팔랑팔랑 ‘제경행상’ 팔랑팔랑 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염불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반당(涅槃堂) 간병실로 가보니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었고, 그를 발로 툭 차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에서 보았던 누나와 어머니는 물론 여러 조객들이 자기를 앞에 놓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그는 살아난 자신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어머니에게 여쭙었다.

“어머니, 왜 여기 와서 울고 계십니까?”

“네 놈이 산에 잤을 따라 갔다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초상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은 진정 일장춘몽이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제 집에서 누나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죽는다고 하여 밥을 바가지에 풀어서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 더구나.”

그는 다시 자신을 위해 염불을 해주던 도반 스님에게 물었다.

“아까 내가 들으니 너는 은행나무 바리때만 찾고 너는 제경행상만을 찾던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나는 전부터 은행나무로 만든 너의 바리때를 매우 갖고 싶었어. 너의 유품 중에서 그것만은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어찌나 강하게 나던지……. 너를 위해 염불을 하면서도 ‘은행나무 바리때’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네.”

“나도 역시 그랬다네. 네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제경행상 諸經行相>이라는 책이 하도 탐이 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확인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 무인들이 노루 고기를 먹던 장소를 가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자취는 없고 큰 벌집만 하나 있었다. 꿀을 따는 벌들이 열심히 그 집을 드나들고 있을 뿐…….

다시 미모의 여인이 붙들고 매달리던 곳으로 가보니 굼직한 뱀 한 마리가 꼬아리를 틀고 있었으며, 청춘 남녀가 풍악을 울리며 놀던 곳에는 비단개구리들이 모여 울고 있었다.

“휴, 내가 만일 청춘 남녀나 무사, 미녀의 유혹에 빠졌다면 분명 개구리, 뱀, 벌 중 하나로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 세계속의 문화유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서인도제도 바베이도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총회에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의학서로는 사상 최초이다.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1997년의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의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2007년의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와 함께 총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등재 수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과거와 달리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인쇄되어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 동의보감. 1610년 25권 25책으로 완성되었고, 3년 후인 1613년 완간되었으니 올해로 400년이 되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보감은 우리의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의학지식인 한의학은 세계 각국에 의료봉사는 물론이고, 신약 개발, 화장품, 건강식품, 미용, 생활 관련한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동의보감은 1596년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되고 병자가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선조의 지시로 허준이 의학 서적을 집대성한 것이다. 동의보감의 우수성은 체계적인 항목 선정에 있다. 이 책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의 다섯 개의 편으로 되어 있다.

- ▲ 내경(內景): 인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들인 정(精), 기(氣), 신(神), 혈(血)과 오장육부(五臟六腑)를 설명함
- ▲ 외형(外形): 몸의 겉에서 관찰되는 인체부위의 의학적 기능과 거기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 설명함
- ▲ 잡병(雜病):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들의 원인, 증상과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원리와 방법들을 서술함
- ▲ 탕액(湯液): 약재의 채취와 가공, 약물의 처방법, 복용법, 약리이론, 오장육부와 경락 각각에 상응하는 약물 등을 서술함
- ▲ 침구(鍼灸): 경락과 혈자리, 침의 종류와 시술법, 뜸의 이론과 실행법, 침과 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금기 등을 다룸

그리고 이 다섯 개의 편이 나열된 순서를 보면 이 책에서는 먼저 내경편에서 인체의 내부를 다룬 후 외형편에서 외부에 대하여 논하여 내외를 논하고, 내외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들을 잡병편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써 탕액과 침구를 다루고 있다. 즉 동의보감은 책의 구성만으로도 의사는 반드시 인체 내부와 외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원인과 증상을 잘 파악하고 나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뒷부분에 단방

요법을 기록하여 가난한 백성들도 쉽고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까지 사랑받고 있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약재에 한글표기를 병기하여 신토불이 우리 약재의 이용을 촉진시킨 점도 높이 살만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당약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산 약재가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교역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라 그 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반백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동의보감은 자연과 사람이 형체적으로 일맥상통한다며 그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어찌 보면 철학적인 사상인 담긴 듯하다. 동의보감에 많은 유명한 문장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문장이라 잠시 소개할까 한다.

〈사람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둥글을, 사람 발이 평편한 것은 땅의 평편함을 본받는다. 하늘에 네 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사지가 있다. 하늘에 오행이 있으니 사람에게 오장이 있으며, 하늘에 여섯 방위가 있으며 사람에게 육부가 있다. 하늘에 여덟 방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으니 사람에게 여덟 군데 마디짐이 있고, 하늘에 아홉 별이 있어 사람에게 아홉 구멍이 있다. 사람의 열두 경맥은 하늘의 12시를 본받고, 사람의 스물 네 혈자리는 하늘의 24절기를 본받는다. 또한 하늘에 365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365관절이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 눈, 귀가 있다. 하늘에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이 잠들고 깨어남이 있다.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기쁨과 노함이 있다. 하늘에 비,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눈물, 콧물이 있다.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에게 추위와 신열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 혈액이 있으며, 땅에 초목이 자라듯 사람은 털과 머리카락을 갖는다. 땅에 금석(金石)이 있듯이 사람은 치아를 갖는다.〉

우리의 인체를 자연의 이치와 대구로 설명한 이글을 보면 지금도 명언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의학의 르네상스라고 표현되는 것이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체계를 성취하였고, 민족의학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 책의 제목에 동의(東醫)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의학이 이미 중국의학의 일개 변두리 의학의 수준에 머무를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다른 독자적 이론체계와 고유한 임상경험이 축적된 독특한 의료하는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이다. 이러한 사상은 중국과 우리는 기후와 풍토가 다르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의 향약과 우리의 의학을 이용하여 치료하여야 한다는 신토불이 사상으로 통한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한의학에 귀중한 자료로서 의학사에 필수적인 문헌 중의 하나이며



초간된 이후 그 가치가 알려지자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 전래되고 간행되어 17세기 이후 동양에서 널리 활용된 의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하여 간행이 거듭되었는데 초간된 이후에 완영, 영영에서 간행되고 1814년(순조 14)에 갑술 내의원 교정 영영개간본과 완영중간본이 있으며 중국은 건륭·가경·광서판, 민국상해석인본, 대만영인본이 있고, 일본은 1724년 경도서림 초간본과 1799년 대판서림 훈점 재간본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실력을 동양 여러 나라에 드러나게 한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에도 큰 영향을 준 의서이며, 의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방서로서 널리 알려진 책이라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판되어 귀중한 한방임상의학서가 되었다.

### 동의보감 집필자 - 허 준

허준의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으로 허론(許礪)과 영광김씨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다. 허준은 어려서부터 “충민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경전과 사서에 두루 밝았고 의학에는 더욱 정통했다고 하나, 서자라는 사회적 신분의 제약으로 문·무관이 아닌 의관의 길을 선택했다. 허준이 어떤 경로로 의관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양천허씨세보』에는 1574년(선조7) 의과에 급제하였다고 하고,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에 의하면 1569년(선조 2) 이조판서 홍담(洪澍)에게 내의원에 천거해 주도록 부탁하여 의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관으로서의 허준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양예수(楊禮壽) 등과 함께 선조를 진료한 공으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1590년에 광해군의 두창(痘瘡)을 치료하여 이듬해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다. 허준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갈 때 어의로서 선조 옆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셨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전쟁이 끝난 후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고, 1606년(선조 39)에는 “양평군(陽平君)”이라는 작호와 함께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라는 품계를 받았다. 1596년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서(醫書)를 편찬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고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에 착수하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편찬이 잠시 보류되기도 하였으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어의로서 책임을 물어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 활동하면서 의서 편찬에 전념하여 1610년 『동의보감』의 편찬을 완성하였고, 1613년 내의원에서 『동의보감』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그밖에 허준은 맥학 관련 의서인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과 일반 민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로 된 의서인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를 저술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자 『벽역신방(辟疫神方)』, 『신찬벽역온방(新纂辟瘟方)』 등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 부처님의 생애

지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출판사 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의 생애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빨리본, 산쓰끄리뜨본, 한문본 경전 등을 근본 자료로 하고 인도고대사를 참조하여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입문서 『부처님의 생애』. 이 책은 개인적인 저술에서 벗어나 불타론 관련 전공 학자들이 공동으로 엮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글자 한 자 한 자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았다.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 전법의 가르침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 우리도 부처님처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 속에는 불교의 위대한 사상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록한 삶의 표본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 ◎ 종단본《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삶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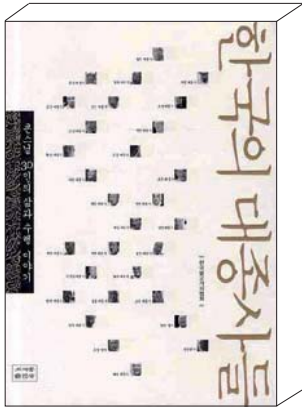
《불소행찬》이나《불본행집경》등의 한문본 경전을 번역한 책이나 외국학자들이 쓴 저작물을 번역한 책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 학자와 스님들이 쓴 부처님의 일대기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는 종단적 차원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조망하기로 하고 불타론 관련 전공학자 일곱 분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단본《부처님의 생애》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 ◎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

지난 2년 동안 10차에 걸친 편찬 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크게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작게는 글자 한 자 한 자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아낸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저자소개

정인스님, 해주스님, 김용표, 박경준, 조준호, 유근자, 성재현



## 한국의 대종사들 - 큰스님 30인의 삶과 수행 이야기

저자 한국불교기자협회 | 출판사 조계종출판사

『한국의 대종사들』.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책으로, 삶의 진리를 깨치고, 여든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꾸준히 실천하신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대종사 30인을 취재에 참여한 기자 29명이 발품이 팔아 엮어 놓은 결과물이다. 어느 때보다 삭막한 이 시대, 그들이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감로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적셔준다.

### ◎ 평생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불교는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일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여기 평생을 그 가르침대로 올곧이 살아온 30인이 있다. '대종사(비구)', '명사(비구니)'라는 최고 법계를 품수 받은 그들은 40년 이상을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수행 정진했고 또 지금도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급속도로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결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세월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소 느끼고 답답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마저 깃털처럼 가벼워져버린 이 시대, 그들이 내어놓은 묵직한 바위 같은 모습에 절로 안도의 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 맑은 얼굴과 목소리 뒤편 치열한 수행이

대종사 27인과 명사 3인은 이미 세속 나이로 일흔을 훌쩍 넘었지만, 놀랍게도 아이처럼 맑은 얼굴과 목소리를 지녔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새벽 두세 시에 일어나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참선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젊은 시절 수행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조계종 중정 법전 대종사가 우리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이지만, 또한 그의 수행담을 고스란히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한겨울 다섯 되의 쌀이 떨어지기 전에 공부를 마치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일념으로 암자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매진했던 그의 수행은 이미 불교계에 유명하다.

그 외에도, 널빤지에 못을 박아 앞에 세워 놓고 잠을 자지도, 눕지도 않으며 용맹정진을 한 종산 대종사, 한겨울밤 맨발로 눈 속을 걸어 출가하기 위해 수덕사를 찾아간 설정 대종사, 파고다공원에서 거지들을 상대로 매일 법문을 한 무진장 대종사 등 그들이 털어놓은 출가의 길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이제 그들은 명실상부 불교계의 큰스님으로 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 시대 정신적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삭막한 이 시대, 그들이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감로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적셔준다.

### ◎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에 가깝게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삶의 고를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지니고 출가하셨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삶의 진리를 깨치고, 여든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대종사 30인은 말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일체 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을 지니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다운 성품을 찾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다.



**버섯**은 영양가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담백하고 은은한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고급 요리의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보통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버섯은 90% 이상이 물이고 단백질 3% 이하, 탄수화물 5% 이하, 지방 1%, 그외 소량의 무기염류·비타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생버섯에 의한 중독이 흔히 일어나는데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것도 있으나, 가벼운 위장장애나 약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끝나기도 한다. 따라서 식용으로 쓸 버섯은 정확하게 동정(同定)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호박** 비타민A 레티놀이 풍부해야 어두운 곳에서도 시력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시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의 밝기만 약해도 잘 안보일 수 있다. 적은 조명에도 강한 시력을 위해 비타민A는 필수적 영양소이다. 단호박은 늙은호박에 6배, 애호박에 25배나 많은 비타민A가 함유되어 있다. 맛이 비슷한 고구마보다는 비타민A가 30배나 많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도 풍부하 들어 있어 항산화 기능을 향상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준다.



###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 버섯전골

**재료** 생표고버섯 6장, 느타리버섯 150g, 양송이버섯 100g, 팽이버섯 2봉지, 배춧잎 2장, 피망 1개, 홍고추 1개, 콩나물 200g, 말린호박 30g, 양념장(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다시마 국물 3컵

1 생표고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느타리버섯은 모양대로 썰고, 팽이버섯은 끝을 잘라내고 손으로 찢는다. 배춧잎, 피망, 홍고추는 채썬다. 말린 호박은 물에 씻었다 건져 양념장을 섞어 골고루 버무린다.

2 전골 냄비에 손질한 콩나물을 깔고 준비한 재료를 보기 좋게 돌려 담은 후 가운데 말린 호박 무친 것을 얹어 다시마 국물을 붓고 끓인다.



## 단호박 깻잎 튀김

**재료** 깻잎 10장, 미삼 50g, 단호박 ¼개, 대추 8개, 밤 8개, 밀가루 1컵, 소금 약간, 식용유 적당량

1 깻잎과 미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는다.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 채썰고, 밤은 껍질을 벗겨 채썬다.

2 단호박은 찜통에서 찌서 속만 으갠 후 채썬 대추, 채썬 밤과 섞는다.

3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고 찬물 또는 얼음물을 넣어 걸쭉하게 반죽하여 튀김옷을 만든다.

4 깻잎에 ②의 단호박 반죽을 적당히 넣고 미삼을 가운데 놓은 다음 돌돌 말아 튀김옷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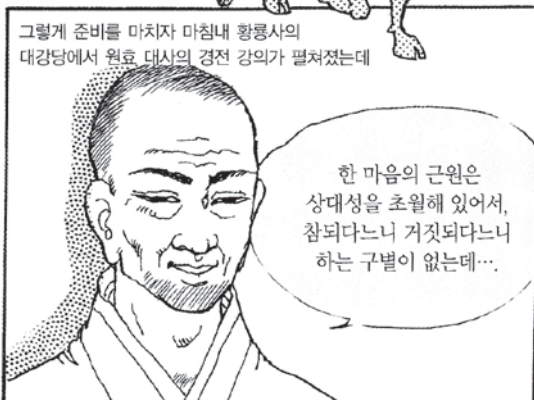
입힌다. 170℃ 기름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긴 다음 반으로 썰어 채반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긴 다음 반으로 썰어 채반에 놓아 기름을 뺀 후 접시에 담는다. 튀김을 키티타월에 올려두면 촉촉해지므로 반드시 채반에 놓는다.

## 두 스승, 원효와 의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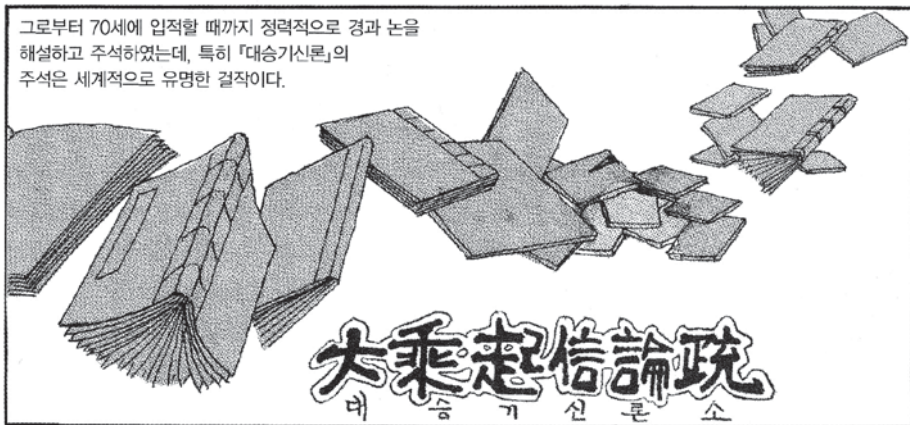


그리하여 원효 대사는 왕명을 받아 금강삼매경을 해설하는 책을 지었다.

황소의 두 뿔 사이에 받침대를 만들고 벼루, 먹울 매달아 소를 타고 가면서 지술했대요.



그로부터 70세에 입적할 때까지 정력적으로 경과 논을  
해설하고 주석하였는데, 특히 『대승기신론』의  
주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이다.



한편 원효 대사와 헤어진 의상 대사는 중국에 들어가  
화엄종의 두 번째 큰스승인 지엄 화상\* 문하에서  
7년간 공부하였다. 화엄종의 법통은  
지엄 화상으로부터 법장으로  
이어졌는데 법장과 의상은  
지엄의 탁월한 두 제자였다.



특히 의상 스님의 화엄학은 일본에 전해져  
크게 존중받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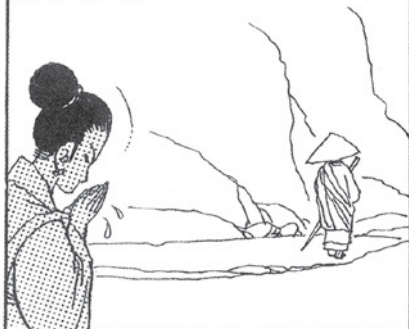


현재 불교 의식이 있을 때 널리 암송되는  
법성게도 의상 대사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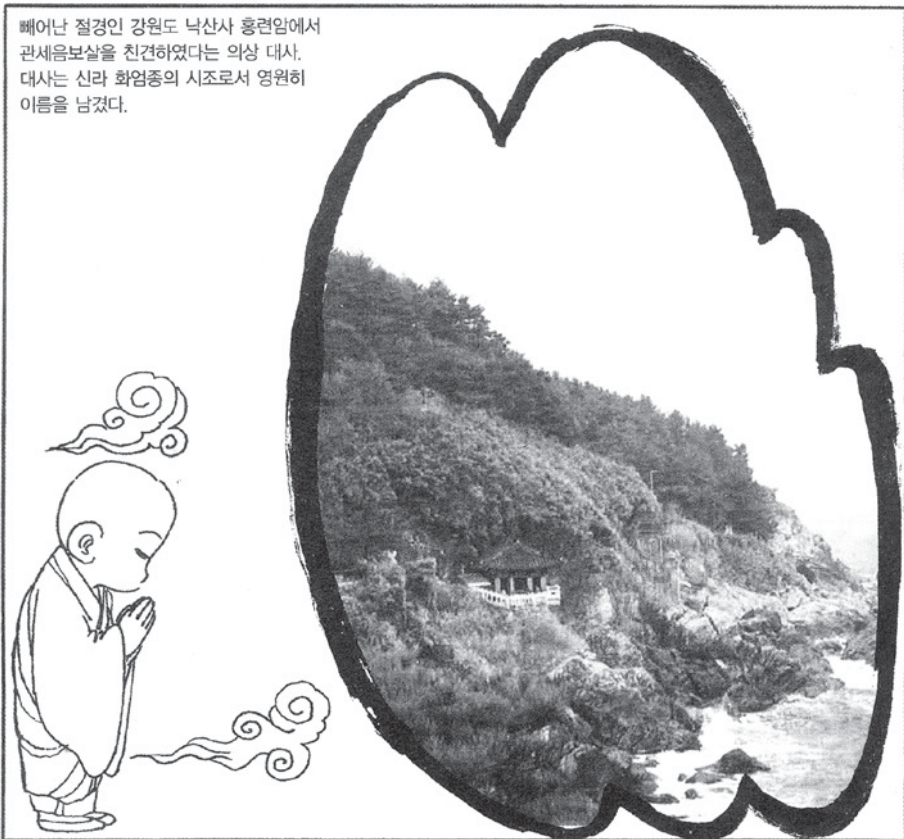
스님을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웅이 됐다는  
선묘(善妙) 남자의 전설은 스님의 청정했던  
자세를 말해 주며



왕이 눈발과 노비를 하사했는데도 거절한 일  
역시 스님의 인품을 짐작케 한다.



빼어난 절경인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였다는 의상 대사.  
대사는 신라 화엄종의 시조로서 영원히  
이름을 남겼다.



※자료제공 : 저자 김정빈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 법왕사 불교 종합 복지관 대웅전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종합 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선남자 선여인의 지혜의 빛을 밝히고 수행의 인연 지어나가는 불사에 힘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 원력에 힘입어 세계최대불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이제 드디어 180평 법당에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불사에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참하는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피입어 자비심과 보리심을 구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불법의 기틀을 다지는 대웅전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에 수희동참 하시어 무량한 복덕인연 지으시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實相 합장





# 말린 꽃으로 포푸리 만들기

꽃을 말리면 은은한 자연의 향을 한동안 즐길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꽃잎과 잎사귀를 나누어 말리는 것. 대부분의 꽃이나 씨, 꽃잎, 잎사귀를 말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신문지나 압지를 쟁반에 깔고 그 위에 잎사귀와 꽃을 따로따로 늘어 놓는다. 꽃송이라면 꽃송이가 위를 향하게 놓고, 꽃잎과 잎사귀는 서로 겹치지 않게 놓아야 잘 마른다. 어둡고 건조한 장소에 놓아두고 매일 위아래를 뒤집어준다. 꽃잎이 약간 딱딱해지고 잎들은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 마른 것이다.

말린 꽃 자체에서는 향이 그다지 은은하게 퍼지지 않으니 약간의 오일이 필요하다.

향을 내는 에센스 오일과 향을 정착시키기 위해 뿌리는 에센스가 그것. 말린 재료 2컵에 에센스 오일 한 방울, 정착제 1작은술이면 된다.

말린 재료를 밀폐 용기에 담고 에센스 오일과 정착제를 끼얹는다. 뚜껑을 닫아 따뜻하면서도 어둡고 건조한 곳에 6주 정도 두면서 향이 재료에 잘 스며들도록 규칙적으로 흔들어 준다. 에센스 오일은 어느 것이나 쓸 수 있는데 꽃의 자연 향을 강조하고 싶다면 재스민, 카모마일, 제라늄, 오렌지 블러썸, 일랑일랑 등이 좋고, 자연 향이 나지 않게 하고 싶다면 평소에 좋아하던 에센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된다.



◀ 은은한 향이 감도는 포푸리. 그릇이나 꽃병에 담아 실내에 두거나,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향으로 이용하자. 옷장 안이나 서랍장에 넣어 두면 은은한 향기가 지속적으로 풍긴다. 포푸리를 그릇에 놓을 때는 향기가 잘 퍼지도록 가끔 저어주도록.

▶ 포푸리를 모던하게 즐기고 싶다면 독특한 재료를 이용하자. 나무껍질이나 한방 재료들도 포푸리로 이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다.



## 오분향례(五分香禮)란

오분향례(五分香禮)란 오분법신(五分法身), 즉 부처님께 향(香)을 공양하고 예(禮)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오분법신(五分法身)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살(菩薩) 및 성문(聲聞), 연각(緣覺)의 수행과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견도(見道) 및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의 세 가지 수행 정도가 있게 된다.

여기서 견도(見道)라 함은 온갖 지적(智的) 미혹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도(修道)라 함은 온갖 정(情)과 의(意)의 방편적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리고 무학도(無學道)란 수행을 완료하여 소승(小乘)의 아라한(阿羅漢)이거나 대승(大乘)의 부처님께서 닦으신 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단계의 수행을 거쳐 대·소승의 무학도(無學道)의 지위에 이르는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게되는 법체(法體), 이를 오분법신(五分法身)이라 말하는 바, 이 오분법신은 계신(戒身)·정신(定身)·혜신(慧身)·해탈신(解脫身)·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탐심(貪心)을 여의므로써 망상을 떨쳐 계(戒)의 몸을 얻을 수 있고(戒身), 진심(瞋心)을 여의므로써 망상을 떨쳐 정(定)의 몸을 얻을 수 있고(定身), 치심(痴心)을 여의므로써 망상을 떨쳐 혜(慧)의 몸을 얻을 수 있으며(慧身), 이렇게 계·정·혜의 3독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함을 얻으므로써 해탈(解脫)의 몸을 얻고(解脫身), 마침내는 일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재의 몸임을 스스로 알아차린(解脫智見) 부처님 내지 대아라한들(解脫知見身).

우리는 이들 오분법신을 향(香)에 비유, 계향·정향·혜향·해탈향·해탈지견향 등 오분향(五分香)을 말하게 되는 것인 바, 이 오분법신에 향을 공양하고 예를 올림을 또한 오분향례(五分香禮)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향(香)이란 산스크리트어 gandha의 번역어로 건타(健陀)라 음역되기도 하는 바, 그 자체로서 계(戒)를 상징하기도 한 채 그 냄새를 맡거나 향을 몸에 바르면 오근(五根:眼耳鼻舌身)을 청정케 하여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전한다.

**계향(戒香) :** 계(戒)를 지킴으로 탐심(貪心)을 여의신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올립니다.)

**정향(定香) :** 마음의 안정(定)으로 진심(瞋心)을 여의신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올립니다.)

**혜향(慧香) :** 참된 지혜(慧)로써 치심(痴心)을 여의신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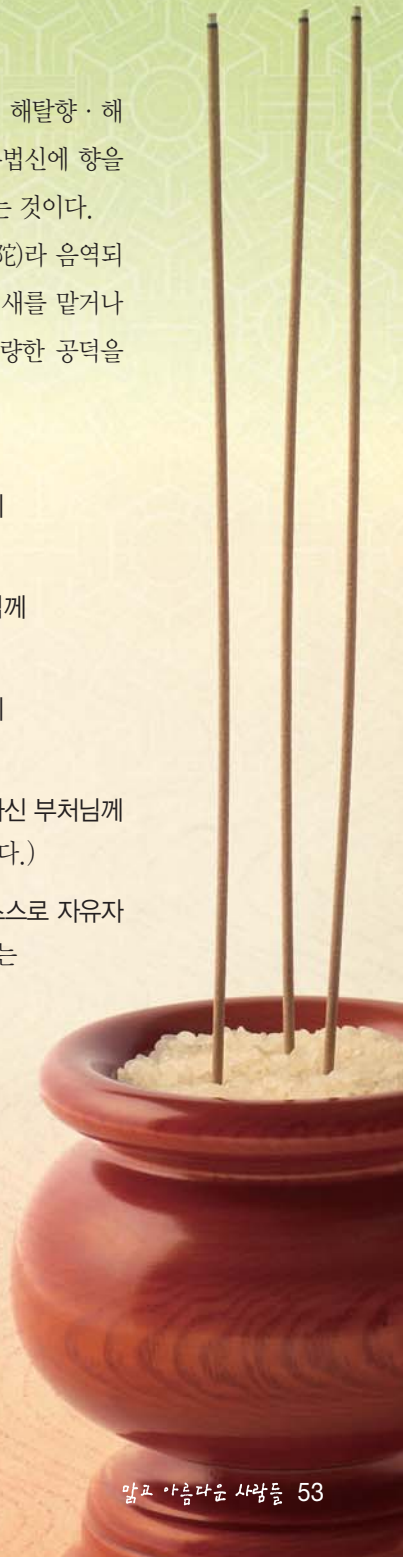
**해탈향(解脫香) :** 삼독번뇌의 속박을 벗어나(解脫) 자유자재하신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예배 올립니다.)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 삼독번뇌의 속박을 벗어나(解脫) 스스로 자유자재하심을 알고 계신(知見)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예배 올립니다.)

**광명운대 주변법계(光明雲臺 周遍法界) :**  
맑은 구름 법계에 두루하여

**공양시방 무량불법승(供養十方 無量佛法僧) :**  
시방의 무량한 불(佛) 법(法) 승(僧) 삼보님께 공양하여지기 바랍니다.

**헌향진언(獻香眞言)**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흠』



## 잘 되었다

석여공

이 가을 햇빛은  
꼭 잘 깎은 목탁 같다  
그때 떠난 것이  
잘 되었다  
참 잘 되었다  
가을이 내 안에서  
얼굴 붉히며  
익어 갈 수 있으니  
가만 두어도  
내가 내 안에서  
단풍들 수 있으니  
산 빛 보며 혼자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석여공 | 1962년 전남 강진 출생. 외편전 작가.  
2006년 계간『불교문예』등단, 2009년 시집 「잘 되었다」발간



## 가을에 만난 부처, 햇빛

어느 햇살 맑은 가을 날 산길을 가다가 바위틈에 홀로 서 있는 화살나무를 본 적 있다.

그 나무를 본 것은 오래전의 일임에도 여전히 그 나무는 해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가지고 온다. 화살나무의 홀씨 하나가 어느 날 제 뿌리를 박차고 홀연히 떠나와 가파른 청석(靑石)틈에 홀로 서서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 것은 단단한 바위를 쪼개는 뿌리의 노고와 비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견딤과 잎을 붉게 물들일 수 있는 '가을 햇빛'이 있기 때문일 것. 그 가을 햇빛을 시인 석여공은 '잘 깎은 목탁 같다'라고 한다.

불공이나 예불을 드릴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기구인 목탁은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 이끌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무한정 가져왔던, 그저 마땅히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온 '햇빛'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한 기관이었음을 문득 깨닫게 하는 시〈잘 되었다〉는 승려이자 와편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석여공스님의 시집 표제 시이기도 하다.

만물을 영글게 하는, 그리하여 결실을 맺게 이끌어 주는 가을 햇빛 아래에서 '그때 떠난 것이 / 잘 되었다 / 참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에서 '그때'를 유추해 보면 아마도 혈육에게서 안락한 보금자리에게서 떠나온 때가 아닐까.

시인은 수행자이면서 이미 와편전 작가로써도 명성을 얻고 있다. 작업장이 없어 여기 저기 거 다니며 기왓장에 새긴 부처, 말씀, 삼라만상과 더불어 한 권의 시집에 아로 새긴 각언(略言)들은 어쩌면 안락한 보금자리에게로 회귀 하려는 마음에 모질게 박아 넣는 혈침일터. '가만 두어도 / 내가 내 안에서 / 단풍들 수 있기'까지, '산 빛 보며 혼자 걸음으로 / 돌아갈 수 있기'까지 마음에 몸에 얼마나 많은 침들을 박아야 했을까. 이 짧은 시 속에 삭히고 삭힌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아롱아롱 눈물 난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잘 되었다. 참 잘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햇빛 한 줍도 부처(목탁)로 모시는 밝은 눈을 가진 시인이 이제 붉게 익었기 때문 일게다. 가을햇살 아래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주던 바위틈의 그 화살나무처럼 스스로 붉게 물들어 풍경으로 서 있는 시인, 참 아름답다.

\_\_끝(김은령)

# 법왕사 소식

인사드립니다.

호랑이의 강인함과 끈기로 뛰겠습니다. 불법을 지키고 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 신행단체 회장단

**지장회** 고문: 백대행심, 장백련화 / 회장: 구실상화 / 총무: 백법성행

**관음회** 회장: 백보현행 / 부회장: 권마하연, 주법등심 / 총무: 박광명화

**신장회** 회장: 이마하심 / 총무: 유명륜행

**산신회** 회장: 이무구행 / 부회장: 전대원화 / 총무: 이무념화

**일심회** 회장: 백대행심 / 총무: 최정심행

**거사림** 회장: 정안식 / 부회장: 라채진, 신상용 / 사무국장: 강녕도

**합창단** 지휘자: 정무시 / 반주자: 박수진 / 단장: 박정인지 / 총무: 이임숙

**풍물예술** 단장: 박성경 / 부단장: 최희순 / 회장: 김영주

부회장: 최영도, 이마하심 / 총무: 신선지

**불교대학** 1기주간회장: 사공순옥 / 부회장: 김미희 / 총무: 유명륜행

야간회장: 임영목 / 총무: 최정심행

2기회장: 채차연 / 총무: 이호진



## ▪ 초하루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15일 초하후를 맞이하여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2010년 경인년 올한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 ▪ 부처님 성도절 기도법회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21일(음력 12월 8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행하신 수행을 본받아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하였다. 부처님처럼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어 일체중생을 교화하고 불국정토를 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설날 합동 기자회견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법왕사에서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설날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평생위패를 모신분이나 절에서 차례를 지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합동차례시간: 불기 2554년 2월 14일(일) 오전10시

동 참 금: 5만원

※ 대중공양 올리실분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왕사에서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매년 실행되고 있는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 쌀 나누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두루두루 동참 기다립니다.



## 조계종 신도증 발급안내

아직도 조계종 신도증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법왕사로 오세요.

신 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도교무금 1만원

재발급(기존신도증소지자): 반명함판 사진 2매, 재발급수수료 1만원, 당해 년도 교무금 1만원

※ 신도 등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후 종무소에 제출하시면 4주 이내 신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찰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우리 절 법왕사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예식장입니다. 주지스님의 주례는 물론 대법당과 공양실, 넓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결혼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대신 콩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결혼식 하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공할 수 있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법왕사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부처님의 행복한 미소속에서 나눔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자원봉사자님들을 기다립니다.

사찰청소, 홈페이지 관리, CMS 관리, 사보 자료 모집 및 교정 등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만불전봉안 및 대적광전 현판식 봉행

법왕사에서는 만불전봉안 및 대적광전 현판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법왕사 광장



#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남 구 김소자 김옥희 김선희 김재우 박우미 김은지  
 수성구 이춘호 김희숙 이예진 김동대 정동순 김보황 김다예 추상훈 김정남 추지민 이준식  
 달서구 이준석 김숙희 이진형 이서현 윤극영 전명자 윤영준 유기란 윤지훈 이일구 이태선 이예린  
 이은우 최성주 이종매 최문교 최문정  
 북 구 최준영 김유진 최은서  
 기 타 김병구 배명숙 김지영 김성진

## 산신인등 접수 하신분

54 오태문 55 오석문 56 윤상경 57 윤성빈 58 박무서 59 박휘

## 인등접수 하신분

21 이환오 27 이창훈 37 윤보배 103 이정우 104 이준엽 134 황금석 135 박주희 148 안은기  
 162 성상현 163 성민규 175 박정숙 192 최희조 194 이응경 217 허환 218 조정훈 219 박성영  
 220 박범영 248 조성혁 249 조준완 253 김중희 254 이태순 255 김남두 265 김명숙 279 안대광  
 280 이현숙 281 안도영 282 안희영 295 최문교 296 최문정 310 강춘희 327 윤정용 328 윤병걸  
 329 김명선 332 오창혁 333 오재대 345 하경웅 346 하재형 347 하은정 365 김영준 366 김창환  
 367 마재성 396 강운섭 425 전창진 426 전종은 455 심규암 456 심혜정 451 김수정  
 458 김유정 494 황경란 495 김용국 496 김태식 561 우재현 581 구연진 582 장순희

## 벽돌불사 하신분

최재훈 권오경 사공순옥 백대행심 오난옥 조난숙 김상수

## 일년등 접수 하신 분

104/이창식 105/김상원 106/이상열 107/박병기 108/최옥분 109/유순자 110/김경식 111/명성철  
 112/최병림 113/장기면 114/최임한 115/우종돌 116/신격기 117/김수배 118/이종량 119/한명옥  
 120/한금복 121/김현태 122/전민관 123/이정환 124/정연국 125/진미자 126/이상태 127/백정석  
 128/조현은 129/배석진 130/안병목 131/김태익 132/조준형 133/김상윤 134/정병태 135/송순희  
 136/류준하 137/이우영 138/우영근 139/김창원 140/배보기 141/권오훈 142/이병중 143/박현규  
 144/임분자 145/이영우 146/배해동 147/전태일 148/조흔제 149/김기수 150/박동근 151/유영철  
 152/유인목 153/임덕규 154/이길호 155/임창효 156/정임형 157/이세정 158/강운섭 159/최재용  
 160/이규설 161/박재술 162/이달우 163/김창원 199/정연목 200/박길수 201/이범우 202/최상홍

## 원불봉안 하신분

3019/안정미(관세음보살) 3020/김금순(대일여래불) 3021/박준호(대일여래불) 3022/박태연(관세음보살)  
3023/박이호(관세음보살) 3024/김현정(관세음보살) 3025/박지혜(관세음보살) 3026/박연지(관세음보살)

## 영가등 접수 하신 분

12. ㄸ안동권고기철영가 13. ㄸ경주전공창조영가 14. ㄸ청도김공윤달영가  
15. ㄸ강릉유곡석근영가 ㄸ연일정氏윤순영가 ㄸ양천허氏덕정영가 16. ㄸ동래정곡익표영가

## 평생위패봉안

ㄸ순흥안공충익영가 -죽산안공규영영가

## 2010년 1월 CMS접수 하신 분

### 초하루, 축원

이범우(2만원) 나형진(2만원) 전태일(3만원)  
진영덕(2만원) 이태현(2만원) 송애자(2만원)  
이선미(2만원) 정연이(4만원)

### 초하루, 인등

이영희(5만원)

### 평화불상

김주영(3만원)

###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 일년기도

이희동(10만원) 김중현(3만원)

### 108석등

이미경(10만원) 이창형(3만원) 윤경진(3만원)  
이정연(2만원) 이정연(2만원) 심명숙(5만원)  
김명술(3만원) 김분용(5만원) 조영자(6만원)  
문영자(2만원) 현미숙(2만원) 현미숙(2만원)  
사공순옥(5만원) 조규인(3만원)

### 원불

심규암(5만원) 김점숙(2만원) 송화중(3만원)  
권창훈(1만원) 옥선혜(3만원) 강승구(4만원)  
이갑선(1만원) 김순희(2만원) 김순희(2만원)

### 한평불사

신은영(5만원) 신은영(5만원) 전숙희(10만원)  
김의환(2만원) 임희경(2만원) 전복량(2만원)  
서필희(1만원) 오형호(3만원) 조병화(10만원)  
류옥연(10만5천원) 장순희(2만원)

### 인등

신인숙(5천원) 신정옥(4만5천원) 황국희(1만5천원)  
김명선(2만원) 이숙희(2만원) 최동춘(1만원)  
류윤경(1만원) 서금자(3만원) 이숙희(1만5천원)  
황경란(1만5천원) 김경란(2만원) 정순희(2만원)  
정순희(2만원) 홍경숙(1만원) 전재호(1만원)  
강춘희(2만원) 강춘희(2만원) 이선영(5천원)  
김숙정(3만원) 전수진(1만원) 최인겸(1만원)  
김경임(2만5천원) 정분희(5천원) 김명숙(2만원)  
최유자(1만5천원) 노수남(5만원) 성상현(2만원)

### 기타

김현주(5만원) 김재현(1만원) 전광환(2만원)  
최은상(3만원) 주석순(5천원) 정영석(5만원)  
임석기(5천원) 조경희(10만원) 이관수(10만원)  
이종량(5만원) 권수정(5천원)

## 왕생극락 하옵소서

- 정영웅거사님의 ㄴ염부 동래후인 정기수영가님의 막제가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엄옥석보살님의 ㄴ자모 평산유인 신화순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이현주보살님의 ㄴ염부 전주후인 이춘식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박영민법우님의 ㄴ염부 밀양후인 박재상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남진모거사님의 ㄴ염부 영양후인 남규호영가님의 100제가 2월 3일에 있었습니다.

## 완납하신분

원 불 709/배현욱

709/배석진

## 알림 - 축하드립니다

- 백인혁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사보 구득 하신 분  
정선기 노건희 이종근 성불화 박종진 김호권 이길호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김영일 한진기사식당 권혁진 이연주 이윤주
- 대중공양 주신 분  
하경용 노수정 송옥순 류주연 백인혁
- 공양미 보시하신 분  
장승우 김상혁
- 커튼불사 하신 분  
지장회 관음회 신장회
- 떡공양 주신 분  
백보현행 권나윤 노수정 박점향 이창현 정재왕  
조일수 박희 박훈 정연국
- 배추보시 하신 분  
이종찬
- 법공양 주신 분  
ㄴ김해김氏 수현영가
- 범종불사 하신 분  
김승길 김승한 김승현 김승석 김고은 김희도 김영진

## 각 재일별 기도 내용

신중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 ~ 초사흘 / 신축법당 3층  
 원불기도 / 매월 음력 8일 / 본당 1층 삼천불전  
 신장기도 / 매월 음력 10일 / 3층  
 인등기도 / 매월 음력 15일 / 3층  
 산신기도 / 매월 음력 16일 / 야외산신각 오후 3시  
 지장재일 / 매월 음력 18일 / 3층  
 관음재일 / 매월 음력 24일 / 3층  
 다라니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반 / 3층  
 거사님법회 /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 3층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3층



전국민의 1%만 먹는 여주쌀로 만든



# 여주쌀국수

Yeoju Rice Noodle

라면대신 담백하게~  
칼로리는 적은 든든한 식사로~  
간식 야식으로~  
바쁜 학생, 수험생, 직장인들~  
시원한 국물을 원할때~

활명시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친환경 유기농 우리쌀 학가리 사업으로 성공하신사외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중**



**우리쌀로 만든 웰빙쌀국수!!**

우리 입맛에 맞는 시원한 국물과 쌀로 만든 부드러운 면발이  
부담없이 속을 풀어주고 칼로리가 낮아 20~30대 여성들도  
즐거찾는 여주 쌀국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주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 획독한 제품  
공정의 표준화를 이룬 맛을 수 있는 제품



**선라이스 식품**  
Sunrice & co

**1588-3038**

[www.sunrice.co.kr](http://www.sunrice.co.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심곡 19-7 세동빌딩 101호

## 불교 어린이 법회 회원 모집공고

한국 불교의 미래와 희망, 불교의 인재양성을 위해 법왕사에서는 어린이 법회 원을 모집합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업성취도 및 인성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것을 약속 드리오니 신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대상: 초등학생
- ▶ 모집: 수시모집
- ▶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 장소: 복지관 2층

※문의 및 접수: 법왕사 총무소 T. 766-3747, 766-3742



## 만불전(원불) 이운봉안법회 및 문화공연안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따르겠다는 신심은 원력을 가지게 하고 그 원력으로 조성되는 부처님은 원불이라고 합니다.

삼천불전에 모셔져 있는 원불을 새롭게 불단을 조성하여 단장한 3층 만불전으로 이운하는 봉안법회를 가지려 하오니 그동안 원불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원불을 모시지 못한 신도님들께서도 수회 동참하시어 무명업장을 소멸하여,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월 25일 목요일 (음 1월 12일) 10시
- 장 소 : 복지관 3층 만불전
- 2부행사 : 문화공연

문의 : 053) 766-3747, 766-3742

※원불을 따로 모신 가족들은 한 곳으로 모아 드리오니 미리 연락바랍니다.



## 법왕사 후 원 안내

### ※CMS 후원

- 자동 출금 이체방식(매달 통장에서 약정된 후원금 자동결제)
- 1구좌: 3,000원 이상
- 방 법: 법왕사 방문 및 전화신청

### ※저금통 후원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준다는 마음도 없이 받는다든 마음도 없이 내가 기도할 법당을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복지관 기도공간을 마련하는데 단 1원을 모으는 정성으로 돼지저금통 불사에 동참합니다.

- 방법: 법왕사방문 저금통을 수령해 채운 뒤 법왕사 복지관 방문전달
- 문의: 766-3742, 766-3747

## 법왕사 중흥불사 원만회향에 우리들의 신심과 정성을 모읍시다.

법왕사 개창 이래 오늘날까지 오로지 불사에 진력하여 복지관을 완공하고 막바지 불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역사에 기리 남는 법왕사를 만드는데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하루에 천원씩, 천일 108만원(108통장) 많은 동참바랍니다.**

동참문의 : 종무소 T. 053-766-3742



## 산신기도 인등접수 안내

청자도자기로 만든 인등이  
24시간 불을 밝혀 드립니다.

[가족당 · 사업체당] 호 룡 불 : 3만원  
인등 1인 : 5천원



농협 702010-51-106490(법왕사)  
대구은행 047-05-003698-6(법왕사)



## 불사 및 기도비

### 불사내역

108석등	108만원	1인
한평불사	100만원	2인1평
원불(대 / 중 / 소)	100 / 50 / 30만원	1인
삼존불 봉안동침	20만원	4인가족
삼존불 설판제자	100만원이상	
범종불사	10만원	1인
범종 설판제자	100만원	
조경불사	10만원	
대리석불사	5만원	

### 기 도 비

일년(365일) 사업기도	50만원	한사업체
일년(365일) 기도	30만원	한가족
백일(100일) 기도	20만원	
삼칠(21일) 기도	10만원	
삼일기도	5만원	한가족
매월신중기도(음력초하루 - 삼일)	2만원	

### 법당(일년)등

사업등	100만원 / 50만원	한사업체
가족등	10만원	한가족
영가등	5만원	

### 천 도 재

49재	300만원/500만원	
100재	50만원/100만원	
소상재(1년상)/대상재(3년상)	각100만원	
사갑재(회갑, 7순, 8순)	50만원/100만원	
기제사	30만원	

평생위패봉안 = 20만원(1위)

## 법왕사 불사안내

시주자 가족이를 새겨 드립니다.

법왕사에서는 불교종합복지관 준공을 앞두고 복지관광장에 최고의 석공예 장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불교 조형물을 설치하여 불자들과 내방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불교조각공원 조성불사를 추진합니다.

법왕사를 참배와 수행의 공간 뿐 아니라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언제나 찾아와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불사에 수희동참하시고 이웃에도 권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증득하시고 구경성불하는 좋은 인연맺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

## 법왕사 12지신상 불사모연문

12지신은 12방위를 지키며, 각 시간을 나누어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수호하는 12신장입니다. 약사여래의 권속으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12서원을 행하며, 모든 괴로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대구시민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12지신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사란 무연중생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며, 인연중생에게 복덕을 지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신심있으신 불자 여러분들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환난과 질병의 고통에 벗어나는 인연지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T. 766-3747, 766-3742

##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우담바라 합창단**(수요일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 대구·경북 불교음악인협회 회장
- **사물놀이반**(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법일 박성경 선생님  
환경 문화 예술단 회장
- **꽃꽂이회**(금요일 오후 2시)  
임상덕 선생님  
- 민플라워 강사(경력 20년)  
- 법왕사 꽃꽂이회 지도 선생님
- **불화반**(매주 금요일 10시)  
만희(영범)스님 - 세심사 주지
- **전통현대무용반**  
김지연 선생님 - 이상화 무용단 단장
- **요리반**  
황미선 선생님  
- 수성케이블방송, 푸른방송, TCN케이블방송  
“황미선의 행복한 밥상” 진행자
- **노래교실**  
장인환 선생님
- **에어로빅**  
현미숙 선생님
- **서예교실**  
류영희 선생님
- **요가교실**  
태광스님
- **동양학강의**(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본원스님 - 13주 강좌



1만5천부를 발행하는 《많고 아름다운사람들》은 광고효과와 열독률이 높습니다. 법우여러분께서 협찬하시는 광고는 제작비에 충당되며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오니, 사업장을 열고 계시는 법왕법우님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법왕사보의 발전에익일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의

많고 아름다운 사람들 법보시 받습니다.

### 사보구독

(신청·변경·취소)

문의: 053) 766-3742  
766-3747

법보시계좌 (무통장입금) 예금주: 법왕사

C M S 039-10-001382

지로번호 3054150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협 702010-51-106490



# 정초 산림기도 및 선상방생법회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법왕사에서는  
정초 7일산림기도 및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동참하시어 경인년 한해,  
선근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정초 7일기도

일 시 - 입재: 2월 16일 (화요일, 음력 1월 3일) 오전 10시  
회향: 2월 22일 (월요일, 음력 1월 9일) 오전 10시  
동참금 : 3만원 / 설 판: 10만원

※ 부처님 전 설판 올리실 분과 공양미 법공양 하실 분은 미리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선상방생 법회

일 시 : 2월 23일 (화요일, 음력 1월 10일) 오전 8시  
장 소 : 삼천포 선상방생, 다솔사 순례  
동참금: 3만원

※ 차량 및 공양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

2010학년도

# 법왕사 불교대학·경전반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

###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3월 12일 개강)

교육내용

1학기 - 불교입문, 불교사의 이해

2학기 -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 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 졸업필수조건 | 출석 80% 이상(매 학기)

### 2. 강의시간

3기 신입생 | 주간: 금요일 오후 2시

야간: 금요일 오후 7시

###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대학등록금 | 입학금 3만원(교재비 포함)

## 경전반

###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3월 17일 개강

교육내용 | 유마경

### 2. 강의시간

주간 | 수요일 오후 2시

강주 | 대한민국 최고의 유불선 대강백  
원조 각성큰스님

###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사찰 신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전반등록금 | 월 2만원 (교재비별도)

접수기간 | 2010년 3월 16일까지

접수방법 | 법왕사 종무소 방문접수

문의: T. 766-3747, 766-3742  
[www.bubwangsa.or.kr](http://www.bubwangsa.or.kr)

## 할인대상(대학·경전반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